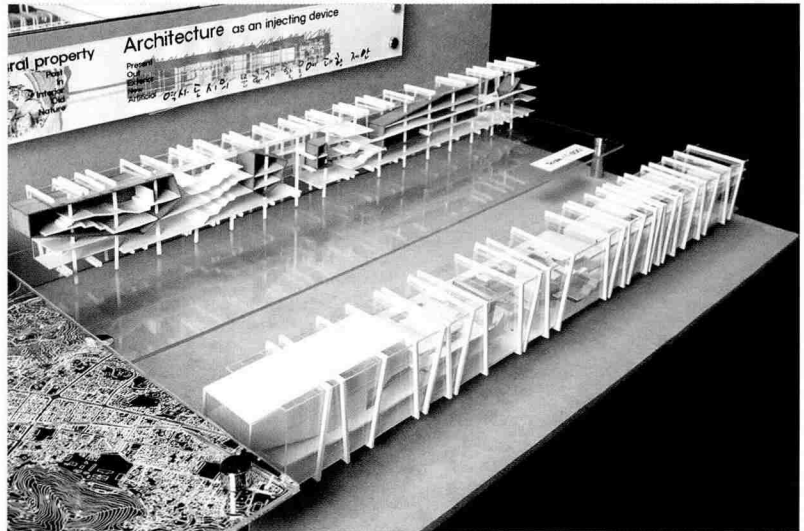


역사도시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안



이신화, 권구인, 김채윤 / 공주대학교 건축학과

우리는 문화재란 '오래된 것이며, 현재를 사는 나와의 관계가 없는 것'이라 생각한다. 그 이유는 문화재 주변이 강한 법적 규제에 인하여 도시공간이 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. 그것으로 인하여 문화재는 보호 받을 수 있으나,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멀어진다. 이를 현재는 법적인 규제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. 우리의 건축적 상상력은 현재는 불가능한 도시 속 문화재의 직접적 활용(안)이다. 문화재 활용은 역사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, 문화재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.

